



#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안전 인식과 안전행동

신 현 숙<sup>1)</sup> · 유 일 영<sup>2)</sup> · 박 하 영<sup>3)</sup>

1)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동서간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Safety Perception and Behaviors of Mothers with School Age Children

Shin, Hyunsook<sup>1)</sup> · Yoo, Il-young<sup>2)</sup> · Park, Ha-young<sup>2)</sup>

1)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2) Yonsei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afety perception and behaviors of mothers with school age children. **Method:** The subjects were 265 mothers of third graders in on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metropolitan Seoul area. Framingham safety survey were used to guide the development of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for mothers. The questionnaire were sent home at school and the children returned them to their class teachers. **Results:** Among 265 mothers, 62 mothers (23.4%) had experience of visiting hospitals because of accidents and 201 mothers (75.8%) had no opportunities on safety education. Mothers with education higher than high school graduation showed more safety behaviors. Also, mothers

having the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showed higher scores on safety behaviors and mothers with the experience of hospital visits related to accidents showed low scores on safety behaviors. In the practice of safety behaviors, it showed high score to the traffic safety, followed by the home safety, child supervision, the safety from fire and explosion, the safety from electric devices, the safety from burn, and the safety from medicines. **Conclusion:** Mothers' overall practice on safety were poor.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safety education for mothers with school age children.

**Key words :** Safety behavior, Safety perception, School age, Child safety

주요어 : 안전, 학령기 아동, 안전행동, 안전인식

투고일: 2007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14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Hyunsook(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 Korea

Tel: 82-2-961-9141 Fax: 82-2-961-9398 E-mail: hsshin@khu.ac.kr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향상 등에 의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Crawley 1996).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사망이 1-4세의 경우 전체 사망의 13.5%, 5-9세의 경우 17.6%, 10-14세는 6.2%, 15-19세는 20.5%를 차지하여, 연간 2500명이 넘는 아동들이 15세 이전에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또한 학령기 아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유형으로 '사고'가 17.1%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운동능력이 발달하고 공포가 적으며 그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모방하며 경쟁하기를 즐겨하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감히 위험스런 도전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유발되게 된다.

현재까지 아동의 사고 관련 연구들은 아동들의 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Kang, 1994; Kim & Moon, 1999; Kim & Lee, 1999). 그 외에,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인식(Lee, Woo, & Kim, 2001)이나 부모가 아동의 사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본 연구(Kim & Choi, 1999), 그리고 학령전기 아동들에게 안전 교육내용을 분석한 연구(Kim & Lee, 2001)가 있다. Park, Jeong과 Kim (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들은 안전예방은 주로 119가 하는 일이라고 보고하였고 아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생활 지도내용이 아동이 자주 지도받고 있다는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Kim & Moon, 2000)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Weiss와 Duncan(1986)은 보호자의 안전인식이 높을수록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에게 안전교육을 자주 실시할수록 아동의 사고가 적었고(Lee & Lee, 1997), 부모가 안

전교육을 실시하는 아동일수록 아동의 안전실천 정도가 높았고, 부모의 안전실천 정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안전교육 요구도가 높았던 것(Kim & Lee, 2001)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동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므로 부모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를 항상 감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나 교사가 평소에 안전수칙을 항상 강조해 왔다면 아동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수칙을 더욱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Cho 등(2000)은 부모역할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고 행동의 기준을 소개해주고, 사회적 행위와 역할을 가르쳐서 아동이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하고 독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역할이 아동의 생활 습관을 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안전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교육하는지가 아동에게 규칙과 역할을 결정지어줄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행동실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는 안전생활에 대한 인식과 안전행동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안전생활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령기 아동의 안전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파악한다.
-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안전인식과 행동정도를 파악한다.
-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아동안전 인식과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내에 위치한 일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어머니 265명이다.

자료 수집은 학교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설문 내용과 기재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그 학교의 보건교사를 통해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집으로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작성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9월 한 달이었다.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안전생활에 대한 인식과 안전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연구 도구

대상자의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Framingham의 아동 안전 조사 설문지 1, 2부(Hansen, Wong, & Young, 1996)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다. 아동간호학을 강의하는 간호대학교수 2인과 실무 양호 교사 1인 등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Framingham 안전 조사(Framingham safety survey)는 아동의 부모를 만나는 의사들이 사고예방과 관련된 상담과 예방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된 중재도구이다. 아동의 발달기 특성에 맞게 조사내용이 구성되어 크게 1세용, 1-5세용, 6-9세용, 10-12세용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6-9세용과 10-12세용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아동안전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 7문항과 아동관련 안전행동 8영역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안전행동의 하부영역은 부모부재시 안전관리 6문항, 약물관리 4문항, 전기기구관리 4문항, 화재예방 5문항, 화상예방 2문항, 아동감독 2문항, 차량안전 4문항, 집안환경점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관련 인식은 문헌을 통해 제시된 아동

안전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을 포함하는 7문항으로 “0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점은 가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점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의 3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낮을수록 안전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관련 안전행동은 3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0점은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거의 하지 않는다, 2점 가끔 한다, 3점 항상 실천한다”의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안전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행동을 더 자주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회수율은 265부가 건혀 87.8%의 회수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82$ 였다.

## 자료 분석 방법

SPSS win 11.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안전인식과 행동점수는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 인식과 안전행동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안전 인식과 행동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어머니 265명으로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분포는 34-53세로 평균 40.9세이며 직업 상태는 맞벌이가 32.1%, 직업이 없는 경우가 66.4%였고 교육정도는 대졸이 6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이하가 25.6%였다. 자녀가 남아인 경우가 46.8%, 여아인 경우가 50.2%였고 과거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4%, 없는 경우가 75.8%였으며 어머니가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6%, 없는 경우가 75.8%였다<표 1>.

### 대상자의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행동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5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학력	고졸이하	68(25.6)
	대졸	161(60.8)
	대학원졸	33(12.5)
	무응답	3( 1.1)
부부 맞벌이	예	85(32.1)
	아니오	176(66.4)
	무응답	4( 1.5)
아동안전 피교육경험 유무	있다	60(22.6)
	없다	201(75.8)
자녀의 성별	남	124(46.8)
	여	133(50.2)
	무응답	8( 3.0)
자녀의 사고로 인한 병원방문경험	있다	62(23.4)
	없다	201(75.8)
	무응답	2( 0.8)

<표 2>는 대상자의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행동을 보여준다.

<표 2> 대상자의 아동안전인식과 행동

조사항목	내용	M(SD)
안전 인식	아무리 조심하여도 사고는 일어난다	1.06(0.73)
	대부분의 아동의 사고는 부모의 잘못으로 일어난다	0.89(0.73)
	대부분의 아동의 사고는 아이의 잘못으로 일어난다	0.75(0.62)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있다	0.99(0.77)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사고예방에 대해 알고 있다	0.75(0.64)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것은 타고난 팔자 때문이다	0.15(0.39)
	부모가 너무 사고예방에 신경을 쓰면 아동이 소심해진다	0.74(0.68)
	M(SD)	0.76(0.29)
안전 행동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지 않는다	1.94(0.59)
	부모 부재시 아이가 질식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안다	1.17(1.12)
	부재시 아이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	1.64(1.19)
	안전 관리 창문의 보호망은 튼튼하다	2.09(1.12)
	아이의 침대는 창문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1.93(1.35)
	아이가 같이 노는 친구나 친척집의 안전을 확인한다	1.38(1.09)
	M(SD)	1.71(0.46)
	가정용구나 약(타이레놀과 철분제제 포함), 날카로운 물건을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이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안에 보관한다	2.14(1.12)
약물 관리	약의 시효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2.64(0.75)
	모든 약병에 안전뚜껑을 덮는다	2.28(1.10)
	집에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2.18(0.90)
	M(SD)	0.17(0.62)
	M(SD)	0.38(0.87)
전기 기구 관리	집의 난방기구를 매달 검사한다	1.62(0.49)
	욕실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1.40(1.09)
	전기기구와 전기코드를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03(1.08)
	전열기구 사용 후 항상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57(1.15)
M(SD)	2.30(0.98)	
M(SD)	1.82(0.65)	

대상자의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의 평균 점수는 총 2점에서 0.76점이었다. 대상자는 아동안전에 대해 ‘아무리 조심하여도 사고는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있다’, ‘대부분의 아동의 사고는 부모의 잘못으로 일어난다’, ‘부모가 너무 사고예방에 신경을 쓰면 아동이 소심해진다’, ‘대부분의 아동의 사고는 아이의 잘못으로 일어난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사고예방에 대해 알고 있다’ 순이었다. 어머니들은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것은 타고난 팔자 때문이다’라는 생각에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아동안전행동의 평균 점수는 총 3점에서 1.85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안전행동이 2.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집안환경점검 부분, 수영하거나 자전거 탈 때 감독하는 아동감독, 화재 예방 부분, 전기 관리 부분, 부모부재시 안전관리 순이었다. 화상 예방과 약물관리와 관련된 항목 실천이

<표 2> 대상자의 아동안전인식과 행동(계속)

조사항목	내용	M(SD)
화재 예방	성냥이나 라이터를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04(1.12)
	침실에서 흡연하지 않는다	2.68(0.78)
	화재시 집에서 피신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0.98(1.14)
	집에 작동가능 한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	1.48(1.42)
	집에 연기나 화재 탐지기가 있다	2.19(1.25)
M(SD)		1.86(0.59)
화상 예방	집에서 사용하는 물의 온도를 체크한다	0.99(1.15)
	난로 위에 놓인 남비의 손잡이가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뒤쪽으로 놓는다	2.26(1.05)
M(SD)		1.63(0.81)
아동 감독	아이가 부모의 감시없이 혼자서 수영하지 않도록 한다	2.46(0.92)
	아이가 부모의 감시없이 혼자서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한다	1.32(1.05)
	M(SD)	
안전 행동	차를 타면 아이는 안전띠를 한다	1.75(1.19)
	차량 아이를 차에 홀로 두지 않는다	2.73(0.60)
	안전 아이는 차의 뒷자리에 앉는다	2.73(0.65)
	운전하기 전 아이가 탄 쪽 차문을 잠근다	2.39(0.94)
	M(SD)	
집안 환경 점검	아이가 놀이터가 아닌 길가에서 놀지 않도록 한다	2.51(0.81)
	아이의 장난감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2.08(0.94)
	침대 매트리스를 아이의 성장 상태에 맞추어 사용한다	1.71(1.25)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다	1.46(0.86)
M(SD)		1.95(0.63)
M(SD)		1.85(0.36)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아동안전 인식과 행동 점수는 <표 3>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행동과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여부에 따라 안전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안전 인식과 행동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안전 인식과 행동

일반적 특성	안전인식				안전행동			
	Mean	SD	F	P	Mean	SD	F	P
학력								
고졸이하	0.74	.29	1.20	.30	1.	.37	1.21	.31
대졸	0.76	.28			1.82	.37		
대학원졸	0.84	.32			1.92	.33		
맞벌이								
예	0.77	.32	0.06	.81	1.80	.36	1.46	.23
아니오	0.76	.28			1.87	.36		
자녀의 성별								
남	0.79	.26	1.81	.18	1.81	.39	1.65	.20
여	0.74	.32			1.88	.34		
자녀의 사고로 인한 병원방문경험								
있다	0.81	.27	1.58	.21	1.79	.37	1.53	.22
없다	0.75	.30			1.87	.36		
안전교육 피교육경험								
있다	0.75	.33	0.17	.68	2.04	.34	15.48	.00
없다	0.77	.27			1.79	.35		

었다. 또한 대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안전행동 점수가 높았고, 어머니 직업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의 경우가 맞벌이가 아닌 경우보다 안전행동 점수가 낮았으며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안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는 않았다.

### 대상자의 아동안전인식과 안전행동간의 관계

대상자의 안전 인식과 안전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아동안전 인식과 안전행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대상자의 아동안전인식과 안전행동 상관관계

	아동안전 인식
아동안전 인식	1.000
아동안전 행동	0.025

## 논 의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초등학생 시기에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책의 필요성은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안전에 관해서 부모의 안전인식과 안전교육, 안전행동 실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져 왔다.

어머니의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은 아동사고에 대한 편견으로 선행연구들(Kim & Lee, 2001)에서 지적되어온 내용들로 본 연구에서도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것은 타고난 팔자 때문이라는 수동적인 의견에는 거의 동의하지 않았다. Kim과 Lee(2001)는 인간행동에 의한 사고의 85%는 인위적인 것이고 15%는 불완전한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하면서 이들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교육, 안전관리에 의해 방지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고를 운명론적으로 보는 소극적이고도 잘못된 견해에 대부분의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각종 안전교육프로그램과 매체를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사고를 부모의 잘못이나 아동의 잘못으로 보거나 안전

에 너무 신경쓰면 아이가 소심해진다고 보는 등의 인식들이 어느정도 지지되고 있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의 인위적인 측면과 예방가능성 등의 본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어머니의 안전행동 실천 점수는 총점 3점에서 1.85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안전행동만이 가끔 실천하거나 자주 실천하는 범주에 속했고 이외에 다른 모든 항목들이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행위로 보고되었다.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나 학령기 아동에게 발생하는 사고 중 익사와 화상사고 등인 점을 고려할 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Bass, Mehta, & Eppes, 1989)에서 아동이 수영에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어른의 감독없이 수영을 할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특히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안전감독이 소홀해지기 쉬운 학령기가 사고에 취약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사고예방 실천정도를 조사한 Kim과 Choi(1999)의 연구에서 약물보관, 교통안전, 아동에 대한 감독, 장난감 선택이나 제공, 안전인식, 낙상예방, 화상예방의 순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안전, 집안환경점검, 아이감독, 화재예방, 전기기구관리, 부모부채시 안전관리, 화상예방, 약물관리 순으로 약물관리와 관련된 것이 가장 낮게 실천되는 안전행동으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감독과 차량과 관련된 안전행동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실천되는 안전행동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가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안전행동 실천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Gielen et al., 2002)에서도 아동안전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안전행동 실천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안전교육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안전인식과 안전행동의 관계를 보았을 때 안전인식의 변화가 안전행동 실천을 증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사고예방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아동이 소심해진다고 생각하거나,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것은 타고난 팔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사고는 아동의 잘못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상당 부분의 안전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아동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행동에 대한 교육과 함께 어머니의 안전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안전사고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안전행동 실천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안전행동 실천을 덜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안전사고로 의견기관을 방문하고도 안전교육이 강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Hansen 등 (1996)이 Framingham 안전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소아과 방문시 사고예방 효과를 측정하였을 때 소아과 의사들이 Framingham 항목들을 환자 대면시에 부모에게 도입함으로써 이들 아동의 부모들의 안전생활실천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던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사고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안전사고 방지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전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들은 보다 심층깊은 도구개발과정을 통해 정련화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 그 이상의 확대해석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Hsu & Wdlian, 1991)에서 사회경제수준과 안전행동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수준을 다루지 못한 점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관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교육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전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들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습관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부모의 지도 및 돌봄이 아동의 생활전반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부모를 중심으로 한 안전 예방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어머니의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행동을 근거로 학령기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이 계획되어진다면 아동의 안전생활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행동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 소재 일개 초등학교 3학년생의 어머니 265명이었으며 2002년 9월 한달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Framingham의 안전성 조사 설문지 1, 2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으로 안전인식 7문항, 안전행동 31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어머니 265명으로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34-53세로 평균 40.9세이며 직업 상태는 맞벌이가 32.1%, 직업이 없는 경우가 66.4%였고 교육정도는 대졸이 60.8%로 가장 많았다. 과거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가 75.8%였으며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75.8%였다.
- 어머니의 안전 인식을 보면, '아무리 조심하여도 사고는 일어난다'를 가장 동의하였고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것은 타고난 팔자 때문이다'는 생각에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 행동 점수를 살펴보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안전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 안전관련 행동에 있어서는 차량관련 안전행동을 가장 높게 실천하였고 집안환경정점, 아동감독, 화재 예방, 전기기구관리, 부모부재시 안전관리, 화상 예방, 약물관리 순으로 약물관리와 관련된 것이 가장

낮게 실천되는 안전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령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아동안전관련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교육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안전인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ass, J. L., Mehta, K. A., & Eppes, B. M. (1989). What school children need to learn about injury prevention. *Public Health Report*, 104(4), 385-388.
- Crawley, T. (1996). Childhood injury: significance and pre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1, 225-232.
- Cho, K. J., Song, J. H., Yoo, I. Y., Park, I. S., Park, E. S., Kim, M. W., Kim, H. S., & Shin, H. S. (2000). *Family-centered nursing care of children I*. Seoul: Hyunmun Publishing Co.
- Gielen, A. C., McDonald, E. M., Wilson, M. E. H., Hwang, W., Serwint, J. R., Andrews, J. S., et al. (2002). Effects of improved access to safety counseling, products, and home visits on parents' safety practice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6, 33-40.
- Hansen, K., Wong, D., & Young, P. C. (1996). Do the Framingham safety surveys improve injury prevention counseling during pediatric health supervision visits? *Journal of Pediatrics*, 129(4), 494-498.
- Hsu, J. S. J., & Wdlian, S. D. (1991). Injury Prevention Awareness in an Urban Native American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11), 1466-1468.
- Kang, H. S. (1994). A case control study of effectiveness of injury prevention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1(2), 18-31.
- Kim, S. S., & Lee, E. S. (1999). A study on the occurrences and causes of accidents i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1), 117-126.
- Kim, S. J., & Choi, H. S. (1999). The degree of mothers' accident prevention practices for their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3), 656-664.
- Kim, S. J., & Moon, S. Y. (1999). A clinical study of the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5(2), 97-106.
- Kim, T. H., & Lee, M. S. (2001). A study on the contents analysis of safe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needs of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8(2), 45-63.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3-6) Statistics on the cause of death 2005. Retrieved 2007.03.06 from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 Lee, S. J., & Lee, M. S.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jury preventive behaviors and accident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4(1), 147-160.
- Lee, H. Y., Woo, J. W., & Kim, I. Y. (2001). Research on the cognition and education of safety for childre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8(3), 59-75.
- Park, H. S., Jeong, M. S., & Kim, Y. S. (2000). General status of primary schools' education for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safety control and students' perceptions on safe lif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4(1), 67-80.
- Weiss, B. D., & Duncan, B. (1986). Bicycle helmet use by children: Knowledge and behavior of physicia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6(8), 1022-1023.